

工藝科 教育의 特性과 課題

—工藝專攻을 중심으로—

鄭 大 有
(誠信女大 工藝科)

1. 工藝教育의 目的

인간의 생활에서 器物이나 用具의 관계는 文化라는 人工的인 메카니즘 속에서 성립되어 왔으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人間의 生活 환경을 가장 폐적한 것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

인간 생활의 改善을 위하여 인간만이 최초로 사용한 것이 道具이다. 이는 삶을 이어 가는 發展된 手段이었다.

이에 따라 工藝라는 概念은 옛부터 自然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이 특별한 能力を 가지고 材料를 써서 삶에 필요한 物件을 만들어 내는 활동은 물론 그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技術의 의미도 포함시키고 있다.

東洋에서의 ‘工’은 ‘巧’와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는 손재주에 의해 물건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며, 훌륭하게 行動하는 것은 훌륭한 道具나 器物을 만드는 것으로서 工藝行爲의 基本精神을 삼아 왔다. 西洋에서는 技術로서의 의미의 藝術로서의 좁은 의미가 그리스어의 Téun과 라틴어의 Ars에 내포되어 있다. 영어의 Crafts는 손재주를 말하는 것으로 職工의 익숙한 손의 技術과 참다운 藝術性을 뜻하는 Art가 합하여 오늘날 現代工藝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

工藝라는 言語의 의미는 오늘날 生活樣式의 변화에 따라 ‘손재주’라는 의미를 넘어 세련된 技巧, 造形藝術의 產業化 등을 탈하며 또한 도구나 기물을 美的 裝飾에 의한 造形性을 가진 것으로 만드는 인간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 사회화, 대량 생산 등으로 인해 美의 絶對性보다 切利性, 나아가 日常의 가치를 고양하는 사조가 모든 예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오늘에 있어 工藝教育도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工藝教育을 전통적인 미술 교육의 범주 이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는 공예 교육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美術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미술은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 인간 생활 그 자체라기보다는 生活의 裝飾이라는 뿐리 깊은 固定 관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로 진보적인 공예 교육의 實踐이 어려웠던 것이다.

오늘의 공예 교육은 개인적인 自己表現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純粹藝術의 측면의 교육에서, 生活의 核心으로서 合理的 측면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인간이 창조한 환경(man-made-environment) 속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넓은 의미의 공예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

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
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美術은 고상한 취미나 표현 행위
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生
活 속의 중요한 機能을喪失해 왔다. 이로 인해
미술을 아직도 優侈로 보는 偏見이 뿌리 깊어誤
解가 풀리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 과정은 모든 學問의 교육 과정에
공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예 교육도 인간의
욕구(need)에 대해 批判的으로 理解하고 이러한
욕구가 妥當한 것인가, 아닌가를 評價하는 경험
을 쌓는 問題解決過程(problem-solving process)
으로의 교육이어야 하고 生產的 造形教育으로서
의 目的이 뚜렷해야만 하겠다.

2. 工藝教育의 特性과 領域

공예 교육은 美와 技能의 感覺을 함양하며 문
제 해결 능력을 교수하는 세로운 教育方法論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開放的 자세를 취하면서
사회적 변화와 학문의 발전, 기술의 발달 등에
대한適應 및 改善을 위해 創意的, 創造的 태도
를 지녀야 한다.

또한 공예 교육은 사회의 개방적 성격에 맞추
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과거의 脈
絡과 이어지지 않는 것도 때로는 수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오늘의 사회가 多樣性을 요구하므로 공예
교육도 각기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
향으로의 作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맥락이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可變的인
것이며 復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
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수용
이란 엄청난 과오를 범하기 쉽다.

공예는 사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는데 그 特性이 있는 것이며,
어떤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教
育方法에는 자기 것의 特有한 傳統技術을 합리
적으로 現實化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能力
을 키우는 사명도 내포되어 있다.

산업 사회의 구조는 工藝 作業에 대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며,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要求하고 있다. 그러나 大學의 公
예 교육은 企業에 필요한 人才를 育成시키는 것
보다 잠재적 능력인을 키워 내는 데에 그 목적
이 있으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기업에서 다
시 다듬어야 한다.

공예에 대한 교육은 18 세기 產業革命과 더불
어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되어 19 세기에 와서
널리 확산되었다. 20 세기초 독일에서는 造形敎
育으로서의 중요성을 느껴 교육의 체계성을 확
립하기에 이르러 1950년대에는 실제적으로 산
업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는 敎育內容으로 발전
하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공예 교육은 고객이 될 가망성이
있는 消費者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器物에 藝術
의 原理와 形態를 어떻게 應用시키는가를 가르
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체계적인 공예 교육은 독
일의 Bauhaus (Hochschule für Gestaltung in
Weimar 1919 ; 고등조형학교)에서 비롯된 生產
의 造形敎育이라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공예
교육은 산업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機能的·
文化的 측면의 성취를 위해 산업에 응용되는 미
술, 즉 應用美術의 의미로 표현하게 되었다.

공예 교육은 鑑賞主義의 미술 교육에 反하여
상상력과 기능력을 특성으로 한 進步的 미술 교
육이다.

산업 혁명 이전의 技能敎育의 특성이 개인 기
능 중심의 전통적인 發想法이나 傳受敎育의 主
觀的 判斷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이라면, 산업
혁명 이후에는 鑑賞主義 미술 교육에서 벗어나
實驗, 實習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문제를 합리적
으로 해결하는 과정의 感覺이 강조되었다. 즉
藝術과 技術을 바탕으로 한 方法論의 측면의 교
육이 요구되었다. 이는 당시의 社會의 趨勢와
교육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공예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학문이나 獨自의 이기보다는 隣接 학문에
대한 많은 知識이 綜合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태하게 된다. 공예 교육
역시 그러하다.

구체적으로는 形態的 理論, 社會學的 理論,
文化人類學的 理論 등이 論理的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만일 공예 교육이 계속적으로 技能教育에 치중한다면 학문의 종합성을 상실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공예 교육은 산업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技術과 工業, 技能과 美學, 材料와 過程, 工藝學問과 隣接學問과의 협동적 탐구와 形態와 機能, 材料와 技術, 美學理論과 創造的인 實行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20 세기에 들어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國際化와 地方化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공예 교육에서도 산업체에서의 生產過程을 수용하여 가능한 한 手工的 요소를 極少化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고도 산업 사회에서의 공예의 영역은 西歐, 現代, 純粹造形, 傳統工藝 등으로 화연하게 구별 할 수 없는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의 특성을 살려 鑑賞用品이 아닌 生活用品으로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예는 材料가 다양하다는 특이한 점이 있어 교육 내용도 大學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공예는 재료가 갖고 있는 外形, 造形, 美學的 試驗, 機能, 技術, 工學, 경영, 유통 등의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 總合科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學에 따라 전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美國에서의 공예 교육이 경험주의에 의한다면 유럽은 文化的인 感情移入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공예가 인간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人間, 社會, 自然의 관계에서 공예 교육의 영역은 도구 개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人間과 社會와의 관계에서의 영역은 정신적 개념, 社會와 自然의 관계에서의 영역은 환경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공예의 개념은 道具的 概念(product design)으로 인간의 非有機的 身體의 延長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예 교육은 '改造(undoing)에 의해 배운다'는 정신을 가지고 재료의 偏狹性에서 탈피하여 교육 내용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改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원리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과거에 얹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형태의 탐색(search

for form)에서 기계 정신의 탐색(léspirit nouvell)으로 보다 바람직한 間(for better living)으로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3. 工藝科의 教育 및 制度

우리나라의 경우 '48년 미군정 법령 제102호로 국립 대학 설치법에 의해 서울大學校 藝術大學 美術部를 설치하여 圖案科가 생긴 것을嚆矢로 '52년 弘益大 工藝圖案科, '53년 서울大 美術大學으로 升格, '60년 서울女大 工藝科, '62년 淑明女大 生活美術科, '62년 誠信女師大 生活美術科, 慶熙大 窯業工藝科, '64년 首都女師大 應美科, '65년 梨花女大 應美科, '66년 中央大 工藝科, '68년 德成女大 應美科, '69년 漢陽大 應美科, '70년 國民大 生美科, 建國大 生美科, '71년 成均館大 生美科 등이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 전국적으로 64개교에 공예 관련 科가 개설되었다. 공예 및 디자인과 관련된 과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예과, 공업디자인학과, 공예과, 공예미술학과, 공예학과, 금속공예과, 도안과, 도예과, 도예학과, 불교미술학과, 산업공예학과, 산업도안과, 산업도안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미술학과, 생활미술과, 생활미술학과, 섬유예술과, 시각디자인학과, 요업공예과, 응용미술과, 응용미술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의상학과, 장식미술과 등을 들 수 있겠다.

초기에는 圖案이란 말의 뜻과 같이 Stylist를 육성할 수밖에 없었다. 과의 명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0년대는 圖案時代, '60년대는 應用美術時代, '70년대 이후는 디자인 시대로 변천되었다. 이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產業化的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즉, 學部에 충설된 科들은 오늘날 산업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학문 분야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60~'70년대는 공예 교육에 산업과 미술, 공업과 미술이 接合되는 시기로 미술의 實用化를 추구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 교과 내용 면에서는 莊潤의 교과 과정의 성립 시기라 볼 수 있다. 문교 정책도 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용적

학과목의 선정, 교양(공통)교육 과정과 전공 과목의 안배, 배점 학점의 교정 등 다각도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70년대부터 圖案이라는 言語(用語)는 '디자인'이란 廣義의 의미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工藝디자인이라는 명칭도 '60년대 產業立國이라는 國家目標에 따라서 商品高級化, 高級人力의 義成 정책에 부합한 교과 내용의 변화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美·日 등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美國의 產業디자인 교육의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一般學(information)—수학, 물리학, 재료, 심리학, 工程, 人間工學, 經濟學, 마아케팅, 歷史 등 25%
- ② 意思傳達(communication)—기계 제도, 자유 소묘, 표현 기술, 모델 제작, 사진, 언어, 작문, 회화 등 25%
- ③ 造形(formation)—디자인 理論, 디자인 方法論, 平面 및 立體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그래픽 등 50%

이는 ICSID(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 국제 산업 디자이너 단체 협의회)의 산업 디자인 교육 위원회(Commission on Industrial Design Education)에서 견의한 것으로 大學에서는 대체로 ICSID의 견의에 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美國 시라큐스大學의 5年制 교과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일반 과목—역사, 이론, 심리학, 경제학, 생산 공정, 마아케팅, 고등 실기, 철학, 디자인 경영 관리,
- ② 의사 전달 과목—언어, 일반 제도, 형태 제도, 공업 제도, 표현 기술, 시작 전달 디자인,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 ③ 조형 과목—기초 디자인, 색채학, 기술 응용, 산업 형태학, 제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생산 공정 연습, 환경 디자인, 기업 디자인 개발, 시스템 디자인, 논문

한편 日本 東京藝術大學 美術學部 工藝科의 4年制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 교육 과목—인문, 사회, 자연과학

- ② 외국어 과목—영어, 불어
- ③ 보건 체육 과목—실기, 장의
- ④ 기초 교육 과목
- ⑤ 전문 교육 과목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彫金, 鍛金, 鑄金, 漆藝, 陶藝, 染織 등 6개 專攻으로 되어 있다.

1, 2학년의 기초 교육 과목은 기초 실기(넷상, 塑造, 毛筆), 공예 기초 연습Ⅰ, 공예 기초 실기, 공예 기초 연습Ⅱ, 일본 공예사 등이다.

3, 4학년의 기초 교육 과목은 금속 재료 및 실험, 金工史, 漆工史, 化學塗裝法, 化學塗裝法實驗, 동양 도자사, 도자 원료학, 염색 공예사, 염색 화학, 古美術研究 등이다.

3, 4학년의 전문 교육 과목은 彫金 기법 연구, 鍛金 기법 연구, 鑄金 기법 연구, 漆藝 기법 연구, 陶藝 기법 연구, 染色 기초 기법 연구 및 실험, 染色 기법 및 실기 연구, 졸업 작품 제작 등으로 되어 있다.

4. 問題點과 改善方向

우리나라 공예 교육 분야의 歷史는 매우 짧은 것이 사실이다. '50년대는 產業社會의 형성과 함께 국가, 행정, 산업, 경제, 문화 등 각 분야가 발전의 태동기를 맞이함과 더불어 工藝教育의 方向과 內容도 태동되는 시기였다. '60년대는 社會構造가 변화함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였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內容은 정립기로 접어들어 교과 과정의 전환을 가져왔다. '70년대는 국가 產業構造의 定着과 產業育成策에 힘입어 교육의 내용과 방향도 定着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80년대는 國際競爭力 강화를 위한 補完期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多樣化됨에 따라 공예 교육의 범위는 더욱 專門性을 띠게 될 것이며, 產學協同의 體制가 이 방면에도 보편화된다면 앞으로의 공예 교육은 더욱 깊이를 더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각 大學은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여 사회에 팔목할 만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공

예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정리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육 내용의 특성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이나 大學의 교육 방향에 따라 科의 名稱, 教科目內容, 수업 연한 등을 정할 수 있겠다. 특히 공예 교육의 專門的 性格에 따라 수업 연한을 장·단기별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예 교육은 人文, 社會, 自然科學을複合한 내용이 많고 강의 이외의 實驗과 實習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예 교육은 첨단 산업과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실험과 실습의 效率的 實施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과 주기적 개선 및 보완이 지속되어야 한다.

세째, 교수 방법의 개선으로 인접 학문과 더욱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점 교환, 소수 정예 교육, Team-Teaching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네째, 공예는 人爲的 環境을 창조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교육 목표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美的 感覺을 심어 줄은 물론 人間의인 良心家로서의 哲學과 미래의 올바른 職業觀을 갖도록 하며 합리적인 思考方式과 폭 넓은 思考能力을 갖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의 사명을 文化發展과 產業育成

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화롭게 共存할 수 있는가 하는 학문적 연구에 두고 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의 未來指向의 수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產業協同體制 강화의 일환으로 專門研究所를 활성화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그것과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하여 社會觀을 키워 준다.

일곱째, 教科課程 研究會를 설립하여 각 대학과 週期的으로 교과 과정을 검토·분석하여 각 대학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協議한다.

여덟째, 과 명칭의 다양성은 공예 교육의 專門的 성격 때문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 명칭은 너무 過多해 專攻을 지망하려는 학생에게 혼돈만 줄 뿐이다. 과 명칭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교과 내용을 多樣化하는 作業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工藝는 자칫하면 美術分野로 보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產業體에서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 방향과 교과 내용이 充實해지면 良質의 人材를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된 인재들은 산업체에서 훌륭한 役割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의 工藝 概念에서 탈피하여 미래를 향한 교육을 바라보며 產業社會에 대응할 수 있는 工藝教育制度의 改善에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